광덕 스님의 법등 운동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불광연구원, 23일 학술연찬회

광덕 스님이 주창한 불광사 법등 운동과 호법 법회의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은 9월 23일 오후 2시 연구원 3층 문수당에서 '광덕 스님의 법등 운동과 호법사상'을 주제로 제33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법등 창등 41주년과 호법법회 400회를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연찬회는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호법사상의 교학적 근거와 역사적 전개'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광덕스님의 호법사상과 호법법회'를, 정헌열 前 불광연구원 연구원이 '불광법등 운동 40년의 역사와 의의'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근대 한국불교에 미친 법등 운동의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연찬회에 대해 불광연구원은 "법등 운동과 호법법회는 광덕 스님의 삶과 수행이 응축된 신행운동으로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불자감소와 탈종교화라는 시대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불교계가 과거의 성공사례를 통해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사명대사 호국활동 계승 방안 논한다

BTN, 22일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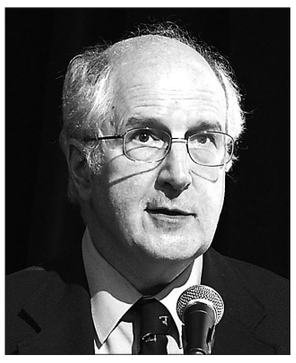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사명대사의 호국활동과 현대적 계승' 주제 학술세미나를 9월 2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BTN은 올해 3월 조계종과 호국의승 선양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사명대사 다큐제작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에 앞서 학술적으로 사명대사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가 '사명대사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맡았으며, 그 외 주제강연은 △사명 유정의 사문상과 의승활동(한상길 동국대 교수) △사명대사의 대일 외교활동 업적과 의의(김정호 인하대 교수) △〈표충사제영〉의 자료적 성격과 의의(이대형 동국대 교수) △〈남붕서첩〉의 자료적 성격와 의의(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등으로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護佛王 아쇼카'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존 스트롱 교수, 9일 리앤원 국제학술강연회



아쇼카 전설, 불교 군주 모델

팔리 · 범어 전승 설화들 분석

정의와 폭력이란 양면성 확인

불교 전통 계승 강조하기 위해

지역마다 설화 결말 다르기도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쇼카 왕은 인도 불교를 중흥시켜 한국 불자들도 '호불왕(護佛王)'이라 부를 정도로 매우 친숙한 인도 군주이다. 그에 대한 전승 설화를 분석해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려는 국제 석학의 강연이 열렸다.

존 스트롱 미국 베이츠대학 종교학 교수〈사진〉는 9월 9일 (사)리앤원이 주최한 국제학술강연회에서 '호불왕 아쇼카의 전설과 그 다양한 면모'를 주제로 일반 대중들에게 강연을 했다.

인도 불교 설화와 불사리 연구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학자인 만큼 스트롱 교수는 아쇼카 대왕의 설화를 분석해 그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했다.

스트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쇼카 대왕에 대한 전설과 설화는 크게 정의와 폭력이라는 정(正) · 부정(不正)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는 불교 군주로서의 이상적 모델을 보여주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이교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잔혹했다. 산스크리트어 전승 설화에서 그의 잔인하고 폭력적 성품에 대해 '흉포한 아쇼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스트롱 교수는 △아쇼카 전생담 △왕비에 대한 일화 △승가 지원 등과 관련 설화들을 분석했다. 아쇼카의 피부는 매우 거칠었다고 전해지는 데 이를 전생담에서 원인을 찾았음을 소개했다.

전생담에 따르면 자야와 비자야라는 어린이들이 붓다에게 흙으로 만든 음식을 공양했는데 자야는 아쇼카였고, 비자야는 신하인 라다굽타였다. 붓다를 공양한 순수한 마음은 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흙이라는 공양물로 인해 거친 피부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트롱 교수는 전승 언어와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른 해석들이 추가됨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후대 팔리어 설화에서는 붓다가 자야가 바친 흙을 승방의 벽을 메우는 데 활용하거나 스리랑카 전설에서는 아예 다른 공양물을 바치기는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아쇼카의 왕비 중 한명인 티시야락시타에 대한 설화들은 결말이 지역마다 다르게 전승된다. 스트롱 교수는 결말이 다른 전승 설화에 대한 해석들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티시야락시타가 보드가야 보리수 '보디'를 여인으로 오인해 마법사에게 저주해 죽일 것을 명령했다가 잘못을 알고 명령을 거둔 설화를 소개한 스트롱 교수는 "스리랑카 전승에서는 보리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서 "이는 스리랑카를 인도 불교 전통의 유일한 계승자로 미화하고자 한 것이다. 보드가야에서 보리수가 죽은 것은 인도에서 불법이 쇠락한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팔리어 전승의 3차 불교결집, 산스크리트어 전승의 5년 대회, 11세기 팔리어 설화의 불탑 건립 불사에서는 아쇼카는 승가를 개혁시킨 군주이자 최고의 승가 후원자, 불교 신앙인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게 스트롱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아쇼카는 정견과 사견을 나누는 개혁자이자 불교의 홍포자, 승가의 후원자,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음을 전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회의적으로 그가 불교의 승가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이런 전설을 쓴 불교도들은 정치적 행위들의 기발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방불교 전문가인 오스카 폰 히뉘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는 카나가나할리 출토 명문을 중심으로 남인도 사타바하나 왕국의 불교 문화를 소개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인문분야 국책사업 잇달아 선정

근대불교 사진 아카이브 등 7개 사업 채택

총 사업비 63억여 원 규모

동국대가 인문사회분야 대형국책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총 사업예산 63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총 15.5억) △토대연구지원사업(총 28.3억)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총 15.5억)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총 3.9억) 등 총 4가지 정부지원사업에서 7개 연구과제가 신규선정 됐다"고 9월 13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2017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는 동국대 일어일문학과 김환기 교수팀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컬리티'를 통해 '탈경계적이면서도 다중심적인' 글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재일디아스포라의 문화 활동을 다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연간 2억 6천만 원씩 6년간 15억 5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2017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에서 동국대는 3개 사업단의 과제가 채택됐다. 매년 2억 6천만원씩 5년간 12억 9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팀은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국불교는 물론 근현대문화, 교육 등 한국학 연구 및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창착소재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석 교수와 박광현 교수 사업단도 각각 매년 2억 6천만 원씩 3년간 7억 7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2017년도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회의록'의 수집 · 번역 · 해제 · DB화(법학과 조성혜 교수) △국내외 출토 한국 고대 역사자료의 총집성과 통합 DB 구축(역사교육과 윤선태) 2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두 사업단을 합쳐 총 15억 5천만 원을 받는다.

2017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에서는 정치외교학전공 황태연 교수의 '패치워크문명 시대와 공맹철학의 재조명'이 채택됐다.

이용규 동국대 연구처장은 "동국대 교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동국대가 연구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산스크리트어 사본 비판교정본 출간

HK연구센터서 국내 최초로

산스크리트어 사본 비판교정본이 국내 최초로 해외출판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이영진 금강대 HK교수가 국내 최초로 산스크리트어 사본 비판교정본(critical edition)인 〈네팔과 티벳에 보존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사본을 바탕으로 한, 성자 비묵띠세나의 '25,000송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 중 첫 번째 현관의 비판편집본〉을 해외에서 출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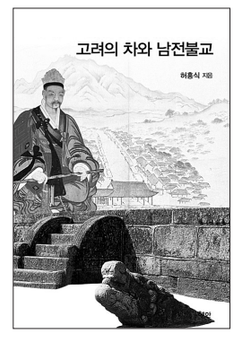
이 책은 인도의 성자 비묵띠세나가 7세기에 저술한 〈현관장엄론주석서〉를 12세기에 네팔 문자와 벵갈 문자로 필사한 두 산스크리트어 사본을 교정한 비판 편집본으로 8년에 걸친 연구 성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국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불교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헌을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내용 역시 충실하다. 문헌과 사본에 대한 서문부터 원문 텍스트, 사본 팩시밀리 에디션 등이 포함됐다. 신성민 기자

茶와 불교 관계사를 탐구하다

주목! 학술서

허흥식 교수의 〈고려의 차와 남전불교〉



'끽다거(喫茶去, 차 한잔 하라)'는 깨달음을 묻는 제자에게 당나라 조주 선사의 답변이었다. 이는 후일 선가의 유명한 화두로 자리잡는다. '차 한잔 마시라'는 말이 화두가 될 정도로 불교에서 차는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사학자인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최근 발간한 학술연구서 〈고려의 차와 남전불교〉는 차와 불교의 상호 관계 역사를 조명한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허 교수가 '북전불교-대승불교-선종'이라는 불교사 상식에 의문을 던지는 점이다. 차는 동아시아 서남부에서 개발되어 확산되었고, 남전불교의 전파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불교사에서 북전불교에 밀려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책에서 선의 기원을 북전불교에서 찾으려는 앞선 통설을 비판하고 철저하게 남전불교에 연결시킨다. 남전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수행의 방법인 참선에서 차와 만나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선종은 상좌부불교의 수행법을 강화한 남전불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중세에 다양한 종파가 경쟁했다.

저자는 "지관을 중요시하는 천태종과 참선을 수행으로 강조하는 선종은 차가 재배되는 따뜻한 동아시아 남방에서, 그리고 화엄종을 비롯한 교학을 중요시한 교종은 민족이동이 심하고 사막화로 자연환경이 거칠었던 북방에서 성행했다"고 주장한다. 종파불교에서 천태종과 선종에는 남전불교의 요소가 강하게 접목됐으나, 불교계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북전불교만을 강조함으로써 점차 남전불교의 요소는 존재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피하고 대승불교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음료와 의약으로 출발한 인삼과 차가 주도적인 위상을 바뀌는 과정과 수입한 차와 재배한 차의 전환과정에 대해 구별 시기 등을 역사적으로 조명한 시도도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허탄신 168주년 기념

제 9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주제 : "일제의 총칼 앞에서 조선의 얼을 지킨 만공"



덕숭총림 수덕사는 경허탄신 168주년 기념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서 조선의 얼을 지킨 만공」을 주제로 한 제9회 만공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만공선사는 1937년 3월 일제 총독부 어전회의에서 한국불교의 일본 예속 하에 강력히 저항하여 총독에게 언어폭탄(一喝)을 던져 일제의 조선 식민지 흉계를 단칼에 숨을 거두게 하고 민족자존을 지켜냈습니다.

만공선사는 **일제를 향한 민족적 저항과 항일정신을 앞장 서 이끌었던** 선풍을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 크게 진작시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아직 미완 단계인 경허 만공 연구가 한층 축적되어 한국불교사와 민족정기 함양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3일 (금) 오후 1시
■ 장 소 | 수덕사 황하정루
■ 주 최 | 덕숭총림 수덕사 / 경허 만공 선양회
■ 후 원 | 충청남도 / 예산군
■ 문 의 | 041)330-7700